

##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9.9.27.(금) 오후 4시~5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박성용, 김경만, 장유리, 박성복, 백대용, 나지수 서창호 위원 등 7인(조영숙불참, 정윤식, 허찬행 위원 서면)

회사 참석 인원 : 심의실장, 시청자센터장 등 2인

### 1. 다음 회의 일정

- 10월 일정 : 10월 25일(금)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 2. 주요 회의 내용

#### ▲ 박성복 위원

- 문자 그래픽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으면 함. 지난 추석 기간에 편성된 뉴스에서 뉴스영상과 더불어 보여지는 자막이 평상시 보여지는 자막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방송이 되는 것을 보았음. 평상시는 좌우 여백을 가진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이루어진 자막이 추석기간에 방송된 뉴스에서 연합뉴스의 바탕색인 좌우 여백이 없는 오렌지색(붉은색) 자막바탕에 흰색 (검은색이었는지 메모가 분실됐음) 글씨로 만들어서 방송되는 것을 보였는데, 크기 역시 평상시보다도 크게 제작되어 방송되었음. 물론 추석기간내내 같은 자막이 송출된 것은 아니었기에 특별제작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자막 그래픽이 뉴스영상에 추가되는 요인은 아니지만 뉴스 시청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막관련 그래픽은 통일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 제시함.

- 예전에는 전문적이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의 앵커가 부각되지만 이제는 자체 브랜드 캐릭터를 고민하고 프로그램 방식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제안함.

#### ▲ 백대용 위원

이번 달에 녹색소비자에서 실시한 유연섬유제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보도를 해줘서 감사하다. 다만, 식약처에서 어제 보도한 '발암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품목 판매중지' 뉴스 내용을 보니 간단하게 식약처에서 보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냈음.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복용 중인 환자가 대략 144만명이었음, 이 사안이 파급효과가 보도자료로 인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소비자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으면 함.

#### ▲ 나지수 위원

- 고용 브리핑365 고용동향& 산업동향을 자세히 전해주는 좋은 컨셉이었음, 뉴워

드, '핑프족' 새로운 용어나 현상을 알수 있었음. 선배 합격자의 자소서를 사용하는데, 기업들은 시로 이를 잡아낸다는 소식이었음, 좋은 프로그램을 알리려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프로그램 광고등이 필요한 것 같음

- 전반적으로 YTN과 비교해도 저년차 앵커들 중심으로 방송하는 듯, 젊은 앵커들이 주는 신선함과 활력도 좋으나, 뉴스도 전문성있는 앵커로 브랜드화시켜 시청률제고에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YTN의 경우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같이 간판 있는 앵커가 필요함

- 조국말 병리학회 9.5.YTN에서 19:50경 논문취소 보도를 보고 채널을 돌렸는데, 연합뉴스TV는 해당 교수가 논문을 제출했고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음. 그 시점에서 뉴스는 논문취소임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분명해보임, 보도전문채널이라면 멘트나 자막이 실시간으로 반영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쟁업체 중 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됨.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보는것도 의미가 있음

#### ▲ 김경만 위원

- 9. 23자 뉴스보도 9월 수출 22%↓, 반도체, 석유제품 부진,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이상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인만큼 수출시장의 부진은 매우 심각한 상황, 따라서 수출부진원인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문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도가 보완되면 더 좋았을 듯함,

- 9월초 뉴스보도 현대차, 8년만에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 주요 내용으로는 연례 파업대명사인 현대차가 8년만에 파업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 등, 현대차의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은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의 불황과 한일 경제적 갈등이라는 외생변수도 있지만, 그동안 귀족노조 등으로 우리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대기업 노조가 장기적인 파업없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 노동계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함, 기업이 살아야 노사가 산다는 인식의 확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와사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 확산에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음, 따라서 금번 현대차의 무분규 타결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전문가의 분석기사가 같이 나갔어야 하는 아쉬움을 가져봄

- 9월 26일,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DLF 파생상품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기업적으로 봐도 과거에 KIKO의 파생상품처럼 개인 소비자에게 주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적극 보도하여야 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정책당국이 개별 은행을 믿을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서창호 위원

- 9/20 07:02 서울.고려.연세대 '조국 반대' 동시 촛불집회, 대학가 조국 반대 동시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조국", "반대"라는 표현은 부적절. 고

대 학생들 '조 장관 임명은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자막을 보냈는데, 화면상으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 인원도 어느 정도 확인됨. 자막 선정 전 관련 전체 집회 참가자 중 실제 재학생과 학생 신분이 아닌 인원 비율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음. 시청자 입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9/19 21:04 교수들 조국 사퇴 촉구 3,396명 참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단체가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 보도한 것으로 보임. 폐교 학교, 허구 학교 교수 포함 논란. 실제로 시국 선언에 서명 참여한 인원이 맞는지 등 최소한 팩트 체크는 필요함.

- 9/19 17:46 뉴스워치, 패널로 당시 취재 기자, 경찰사법대학 교수 출연, 드러난 내용과 수사방향에 대해 살펴봄. 당시 경찰들이 겪은 수사상 어려움, 범인을 검거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다는 경찰 이미지가 부각, 패널은 역사적 진실,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피해자들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방송에서 진행자가 패널에게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기는 하였으나, 패널은 당시에는 과학수사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범인 검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모 강제채취 DNA 검사한 부분만을 언급함.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였는데 확실하게 질문하여 시청자에게 알려주면 좋겠음.

- 9/15 "죽음 준비하는 노인 잘 죽는 법 알면 잘 살죠." 죽음에 대한 보도.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어 좋았음. 또한, "집에서 임종 맞고 싶지만"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으나 여건상 어려운 점,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다는 점 등 문제점도 지적함. 향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문가 패널을 초대하여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음.

#### ▲ 장유리 위원

- 헤드라인 부분에서 무게감이나 여러 가치적인 부분에서 주요뉴스 분류를 잘 하고 있음, 어떤 매체보다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드라마나 오락이나 이런 것만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뉴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하고 있다고 봄.

- 뉴스에 빨간 자막이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느낌이 가끔 생각이 든다. 물론 핵심을 전달하는데 필요하겠지만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출이 너무 잘된다는 것. 단점으로 약간 불안감을 조성함

- 요즘 1인 미디어시대에 다양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데, 단독기사, 속도경쟁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연합뉴스TV에서는 국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하였으면 좋겠음.

#### ▲ 박성용 위원

- 미담뉴스는 시청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음, 추석 하루 전 중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7명에게 장기기증을 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음, 그 학생은 반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학교생활에서 모두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으며, 검사가 목표였다고 함, 뉴스 마지막에 제공하는 "사건·사고"에서 이러한 미담뉴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회를 보다 사람다운 사회로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임, 미담뉴스 제공을 찾아서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 며칠 전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요양병원에서의 화재는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상 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도 계속해서 발생함, 뉴스 마지막에 제공하는 "사건·사고"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좀 더 파고 더는"뉴스로 제작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다른 방송사에 비하여 뉴스진행이 조금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듦,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뉴스 진행자가 너무 경직되고 정적인 것(팔, 얼굴 등 신체적인 움직임이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 개선, 검토를 요망함.

#### ▲ 허찬행 위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9.7.00:10)를 하면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했다는 뉴스, 패널이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직접 보자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답변 자료 화면이 준비되지 않음,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뉴스보도를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장면임. 영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패널이 직접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하면 됨.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앵커 멘트와 자료 화면의 불일치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료화면을 직접 보자는 멘트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그동안 보지 못했음. 추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방치 되다 시피한 시청자게시판을 정비하여 보기 좋음, 현재도 연합뉴스TV와 상관없는 동일 작성자의 반복된 게시 글이 상당수 있음, 일부 의견은 연합뉴스TV와 관련된 시청자의 의견인 만큼,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어도 답변을 남겨줄 필요가 있음, 시청자 게시판 운영 목적이 시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 만큼 시청자들의 문의나 요청, 평가 의견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정윤식 위원장

- 20일 오후 2시 뉴스 현장 이춘재 보도에서 " KBS 자료제공" 이 잠깐 나오는데 경찰에서 타자치면서 조서 꾸미는 장면으로 보임, 별의미가 없는 사진을 화면으로 방

송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굳이 KBS 자료제공일 필요가 없어보임, 잠시 후에 같은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그 때는 KBS 자료제공 이라는 인용이 없음

-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 제목들 간에 차별화되지 않고 단조로운 인상을 줌, 예를 들면 "뉴스현장" "뉴스터치" " 뉴스 1번지" 등 종편 보도 뉴스 프로그램들도 제작각 다양한 이름을 붙이고 있음, 앵커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홍길동 앵커의 뉴스 메이커 등", 해설 프로그램만 집대성해 " 한주의 뉴스 집중분석" 또는 "뉴스 디베이트", " 갑론을박", 시청자의 이목과 관심, 뉴스의 특성을 집약할 수 있는 대중성있는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음, 특집 및 토론 주제 제안,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의